

## 95. 너희들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야! 가서 내 사랑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거라.

2015.07.16 – 예수님께서 콜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금식과 관련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파이 한 조각때문에 비난을 받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의 신체의 화학적 작용을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가장 첫번째인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제지도 너희들에게 가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야.

악마들은 특히 너희들 자신에 대한 환멸과 낙담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작은 일들을 이용할 거야. 너희들을 덜 효과적이게 만들기 위해 비난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비난을 받고 그 미끼를 물었을때 적들은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것을 방금 망쳐버렸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기도에 힘썼더라면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라고..

거짓말과 절반의 진실이야. 나는 너희들의 금식 공물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한계를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악마들이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식 공물을 바치도록 영감을 줄때, 악마들은 너희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비난으로 너희들을 공격하여 너희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결국 너희들은 실패하였고 그것들은 가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야.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의 기도는 절대로 가치가 없지 않다고 말해. 그것들은 가치가 있어. 그러니 악마들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나는 금식 공물보다 너희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의 이웃을 멸시하였어. 그들의 금식은 가치가 없어.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지에 대한 자만심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 정말로 “나는 절대로 그들을 알지 못해.”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7장21~23절)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25장42~43절)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금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나무에 열매를 얻으러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어. 나는 사랑, 겸손, 순수한 동기를 찾았지만 자만함, 교만함, 판단만을 찾았어.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궁핍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나는 속히 너희들의 옆에 나타날 거야. 나의 신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시도해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종교의 영에서 ‘예수’의 영으로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지 보아라. 그래, 나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고, 화내는 것이 더디고, 언제나 섬기는 것.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은 눈부신 기적뿐만이 아니었어. 그것은 나의 사랑이었어. 그것이 발을 씻기고 병든 사람들을 낮게 하기 위해 나를 천국에서 내려오게 만든 거야. 그것이 눈부신 본성이었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는 이 선물들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나는 너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해. 예언과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나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했을 것을 해라. 그것은 미래 또는 지나가게 될 것들에 대한 지식보다 너희들과 나의 왕국에 지금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너희들을 이 지구에서 데려갈때 너희들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했었던 일들이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너희들이 지구에서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어.

너희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가져올 거야. 너희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거야. 너희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져다줄 거야. 너희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킬 거야. 요컨대, 너희들의 사랑은 이 순간에 나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죄인들은 평생동안 불과 유향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어.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그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의 마지막 수단이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과 자비의 대사들이야. 너희들이 없다면 나는 조금 밖에 할 수 없어. 그들은 내가 나의 백성들 안에 살아 나의 백성들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해. 만약 무슬림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언적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진실로 사랑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이며, 그들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였어. 그것은 ‘예수의 영’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증거를 가져와.

너희들은 내가 가혹하게 다루었던 사람들은 한 그룹밖에 없었고, 그것이 매춘부와 세금징수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매춘부와 세금징수원은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제자들로 만들고 나의 사랑으로 세례를 주면 그들은 나의 왕국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달려올 거야.